

# 7월의 사양관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제공



## 일반관리

여름철 국지성 호우 및 고온에 대비하여 축사는 통풍을 좋게 하여 축사 바닥을 건조하게 유지하고, 뜨거운 한낮에는 방목이나 그늘막이 없는 야외운동장 사용을 금하고 축사 안에서 송풍을 해주거나 운동장에는 그늘막을 만들어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해 준다. 가능하다면 안개분무 시설을 설치하여 시원한 물로 자주 목욕을 시켜 더위로 인한 식욕감퇴, 산

유량 감소 등을 막도록 한다. 사료빈을 수시로 점검하여 결로현상에 의한 수증기 발생으로 사료빈 내의 농후사료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우사의 소독은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준다. 또한 우유 처리실 내는 항상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원유 냉각기와 착유기는 매일 세척하여 원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사양관리

우리나라 여름철의 고온다습은 젖소가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여름철 젖소의 고온 스트레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호성이 높은 질 좋은 조사료(NDF 25% 정도)를 아침, 저녁 및 야간에 급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반추위 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농후사료 급여 전에 조사료를 먼저 급여하고 나중에 농후사료를 급여하는 것도 조사료 급여량을 늘리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농후사료는 아침, 저녁으로 급여하며 지방(전체사료의 7%를 초과하지 않도록)을 첨가하여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고 산유량과 체중을 유지하도록 한다. 완충제(산화마그네슘, 중조 건물 기준 0.5%)를 첨가하여 반추위 내 산도를 정상으로 유지하며 비타민D와 셀레늄을 첨가하여 번식능력 저하를 예방한다. 농후사료에 나이아신을 첨가하여 지방대사 활성화와 케토시스 예방을 도모한다. 급여하는 사료에 당밀을 2~3% 첨가하여 기호성을 증진시키는 것도 채식량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다. 더위 스트레스에 따라 사료섭취량이 8~12% 감소하게되는데 그 결과로 ① 제

1위 산성화 ② 휘발성지방산 생산감소 ③ 산유량, 유지율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번식기능 저하로서 ① 수태당 수정횟수 증가 ② 내분비 기능 이상 ③ 난소기능 저하 ④ 발정시간 단축 ⑤ 공태기간 연장으로 농가 경영에 피해를 주게 된다. 그 밖에 유방염 발병률 증가, 면역기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료섭취량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동시에 체온 조절을 위해 소모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여름철 사양관리의 요점이다



## 방역 및 위생관리

**여**름철에 발생하는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의한 피해가 크므로 이 질병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일사병이나 열사병 모두 응급처치는 우선 높아진 체온을 신속히 떨어지게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발병한 개체는 통풍이 잘되고 그늘진 곳으로 옮기고 머리와 전신에 냉수를 부어준다. 냉수는 체온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부어 주며 수분 간격으로 직장을 통해 체온을 측정하면서 계속해서 냉수를 머리에 부어 준다. 증상이 아주 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 직장 내에 고무호스를 30cm 정도 넣어 수도꼭지와 연결하여 찬물을 5분 정도 주입하면 대개는 위급한 상황은 모면할 수 있다.

예방법으로는 운동장이나 방목지에 그늘을 만들어 주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방목을 가급적 피하고 물과 식염은 항상 자유롭게 먹일 수 있도록 한다. 여름철 모기가 전파시키는 가축 전염병에는 아카바네병과 소 유행열, 이바라기병 등이 있으며, 이를 예방을 위해서는 가축 관련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특히 축사주위 물웅덩이에 고인물이 없도록 배수를 철저히 하고 방충망이나 모기 퇴치 전구 등을 설치하거나 축사에 대형 선풍기를 틀어 모기의 가축 접근을 막아준다.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수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고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한다.



## 초지 및 사료작물

**옥**수수는 태풍 및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특히 사일리지 작업 적기를 수시 관찰하여 최적의 사일리지 생산이 되도록 한다. 옥수수의 수확적기는 황숙기로 호분층이 2/3정도이며 포엽이 마르기 시작하고 속대가 암적색인 출사후 35~42일경이 적당하다. 또한 초지 및 사료작물에 발생하는 멸강충 및 조명나방에 대한 방제를 실시해야 할 시기이므로 예찰을 철저히 하여 발생초기에 방제를 실시한다. 청초 급여용으로 수단그라스를 이용할 경우 1차 예취를 너무 일찍하게 되면 급여시 청산중

독의 위험이 있다. 특히 60cm 이하의 어린 수수류는 청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가뭄 등으로 풀의 성장이 억제되면 청산함량이 늘어난다. 따라서 초고가 60cm~1m 이상 되면 이용하도록 하며 1차 예취를 하고 추비로 요소를 시비한다. 초지는 여름철 고온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목초의 하고현상으로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하고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0~15cm의 적당한 높이로 예취하고 초지는 비올 때 예취하지 말고 추비로 요소를 시비한다. ☹